

사학과

DEPARTMENT OF HISTORY

(학과 홈페이지: <http://cms.dankook.ac.kr/web/web/history/>)

(학과 전화번호: 031-8005-3020)

“과거와 현재의 다양한 인류의 삶을 성찰적으로 인식함으로써 인류사회에 공헌하는 인재양성”

□ 학과소개

학과소개	사학과는 단국대학교 개교와 함께 설치된 학과로 역사와 문화에 대해 폭넓은 지식과 올바른 세계관 배양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사·동양사·서양사·고고미술사를 체계적으로 이수할 수 있는 교육과정, 학과 교수 및 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정기 학술 담론, 유물·유적에 대한 조사·발굴 작업을 통해 전공 학습을 심화합니다.									
필요한 적성	역사와 문화를 종합적·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사고하는 능력									
핵심 전공역량	자기 주도	지식 활용	논리적 사고	의사 소통	창의적 문제 해결	도전	지식 융합	세계 시민	상호 협력	공동체
학과 설립연도	1947년									
재학생수	남 : 102명 여 : 147명									
전임교원 수	8명									
교직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설 여부 : ○ - 표시 과목 : 역사교과교육론, 역사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 이수 가능 인원 : 약 4명(입학정원의 8%) 									

□ 교육과정

1학년	동아시아의 역사와 문화, 문학유산학개론, 서양사를 만든 사람들, 서양의 역사와 문화, 한국의 역사와 문화, 일본사의 이해
2학년	동아시아 고대사, 박물관학, 자료로 본 서양사, 한국 고대사, 한국사 자료 강독, 고려 시대사, 미국의 역사, 유럽의 역사, 자료로 본 동아시아사, 한국 고고학
3학년	동아시아 중세사, 서양사상의 역사, 한국사 논문작성법, 한국사 상사, 동양사상의 이해, 서양 근대사, 유목 정복 왕조와 동아시아 세계, 조선 시대사, 한국 미술사
4학년	근현대 동아시아 세계의 변모, 서양 현대사, 한국의 독립 운동사, 한국사 특강, 고고미술사 특강, 동양사 특강, 한국 현대사

□ 학과 내 학生活동(특별프로그램, 동아리, 스터디모임, 자치활동, 캠프, 학술발표회 등)

학술답사	매년 봄과 가을에 전국의 문학 유적·유물을 직접 보고 느끼는 현장학습 프로그램
학술제	매년 가을 특정 주제를 선정하여 학생들이 직접 글을 작성하고 발표·토론하는 학술 프로그램
학회	'역사학회(단풍)', '역사콘텐츠학회', '서양사학회(아르케)' 등 전공 관련 특정분야에 흥미를 둔 학생들의 학업 능률 향상을 위한 학회와 '밴드부(아생마)' 동아리 등 학과 내 취미 관련 동아리를 운영 중

□ 졸업 후 진로

사회진출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원 진학 후 학계 및 연구기관으로 진출 - 발굴기관 및 박물관 전시·연구·유물관리 등 - 역사 교과목 교사 및 학원 강사 - 공무원 및 일반 기업 취직
자랑스런 동문	<p>"신동엽(1953년 졸업) 교사, 시인" "윤내현(1966년 졸업) 전 단국대 부총장, 전 단국대 명예교수" "윤근일(1973년 졸업) 기전문학재 연구원장, 전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소장" "김경연(1976년 졸업) 고려대 교수" "최맹식(1978년 졸업)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장" "한시준(1982년 졸업) 독립기념관관장" "임홍순(1984년 졸업) KBS 과학재난 부장" "주재숙(1987년 졸업) 대전일보 논설위원" "김학균(1990년 졸업) OBS 경인TV 보도국장" "박혜경(1994년 졸업) 미술품 경매사, 에이트 인스티튜트 대표"</p>

□ 취득 가능 자격증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 국시편찬위원회
- 한자능력검정시험 / 한국어문화, 대한상공회의소 등

□ 학과 tip

교수님 한 말씀!!	사학과에서는 한국사·동양사·서양사·고고미술사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사료분석을 위한 한문 및 외국어 학습을 중점으로 한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학기 진행되는 정기학술답사에 전공교수가 참여하여 학생들을 지도·소통합니다.
선배님 한 말씀!!	학년별로 적절히 구성된 커리큘럼과 한국사, 동양사, 서양사, 고고미술사 전공으로 다양하게 개설된 수업을 통해서 탄탄한 역사 지식을 쌓아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매학기 진행되는 정기학술답사 덕분에 살아있는 역사를 공부하기에 적합한 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천도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시 찾는 우리역사 / 한영우 / 경세원 - 영국사 / 김현수 / 대한교과서 - 아틀라스 중국사 / 박한제 외 4명 / 사계절